MARKET
STRATEGY

2026. 3. 17.

투자정보팀

맹주희 선임연구원
juhee.maeng@samsung.com

김종민 수석연구위원
Jm56.kim@samsung.com

Compliance Not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코스닥 시장, 재평가 국면 진입

액티브 ETF 상장과 정책 지원을 통한 수급 구조 변화에 주목

- 연초 이후 코스닥 시장이 1,000pt를 탈환한 가운데, 최근 출시한 액티브 ETF로 자금이 쏠리며 코스닥 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 확대 확인
- 향후 코스닥 시장은 정부 정책 지원에 따른 기관 자금 유입 가능성, 코스피 이전 상장의 매력 저하 등에 따른 구조 개선과 투자자 수요 기반 강화 기대
- 따라서 본 리포트에서는 코스닥 종목에 대한 단기·중기·장기 관점의 맞춤형 투자 전략을 제시

WHAT'S THE STORY?

올해 초 코스닥 시장은 1,000pt를 상회하며 투자자 관심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러한 흐름은 지난 3월 10일 상장된 코스닥 액티브 ETF로의 자금 유입으로 코스닥 시장에 대한 투자 수요가 대형주뿐 아니라 중·소형주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코스닥 시장은 순환매 중심의 수급 구조, 기관 투자자 참여 부족, 이전 상장 리스크 등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시장 전반의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제한되어 왔다. 그러나 ETF 투자 확대, 정책 기반의 기관 자금 유입 가능성, 코스피 이전 상장에 따른 시장 내 지위 변화 등으로 인해 코스닥 시장의 투자 구조에도 점진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수 중심의 패시브 흐름보다는 종목별 차별화가 심화되는 액티브 장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본 리포트는 코스닥 시장의 구조적 변화 국면에서 단기·중기·장기 관점의 투자 전략과 관심 종목을 제시한다.

단기 투자 전략: 코스닥 150 지수에는 부재하나, 신규 코스닥 액티브 ETF 포트폴리오에는 편입된 종목을 선별했다. 출시 초기에는 패시브에서 액티브로의 자금 이동과 액티브 ETF의 폭발적인 순자산(AUM) 성장이 맞물리며 해당 종목군에 단기적인 수급 쏠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기 투자 전략: 액티브 ETF 내 편입 비중은 낮거나 전무하지만, 탁월한 실적 성장성을 바탕으로 향후 바스켓 편입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로 선별했다. 실적 성장주들이 코스닥 주도주로 자리매김한다면, 고질적인 디스카운트 요인이었던 고밸류에이션 논란도 점차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장기 투자 전략: 코스닥 시장의 근본적인 레벨업을 이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을 선별했다. 액티브 ETF로의 초기 자금 유입 러시가 안정화되고 코스닥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회복된다면,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은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의 순환매로 재차 이어질 전망이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I. 코스닥 시장의 반등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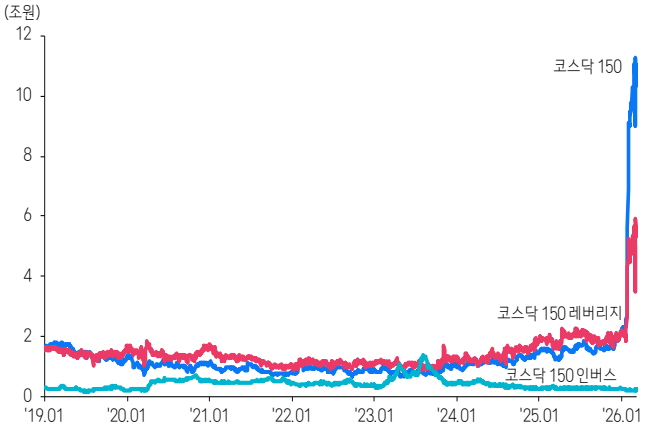
코스닥 시장에 대한 투자 관심 확대

올해 초 코스닥 시장은 '21년 이후 약 4년만에 1,000pt를 상회하며 시장 내 투자자 관심이 재차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코스닥 시장에 대한 투자 수요는 최근 ETF 시장을 통해 확인되는데, 지난 3월 10일 상장된 코스닥 액티브 ETF는 상장 직후 전체 ETF 거래대금 상위권을 기록하며 시장의 관심을 보다 뚜렷하게 반영하는 양상이다. 특히 대형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TIME 코스닥 액티브 ETF보다 중·소형주 중심으로 구성된 KoAct 코스닥 액티브 ETF로 자금이 더 빠르게 유입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이는 투자자의 관심이 코스닥 대형주뿐 아니라 중·소형주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연초 이후 코스닥 지수의 반등과 시장 관심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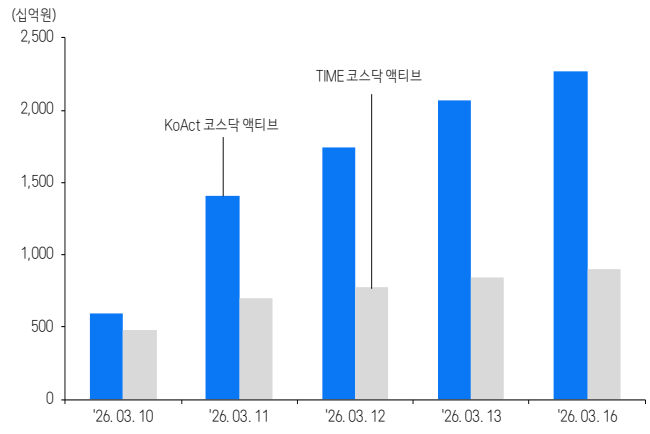
참고: 종가 기준
자료: FnGuide, 삼성증권

코스닥 패시브 ETF 시장 규모 확대



참고: AUM 기준
자료: FnGuide, 삼성증권

KoAct 코스닥 액티브 ETF 상장 이후 거래 확대



참고: 누적 거래대금 기준
자료: KRX, 삼성증권

II. 코스닥 시장의 구조적 제약과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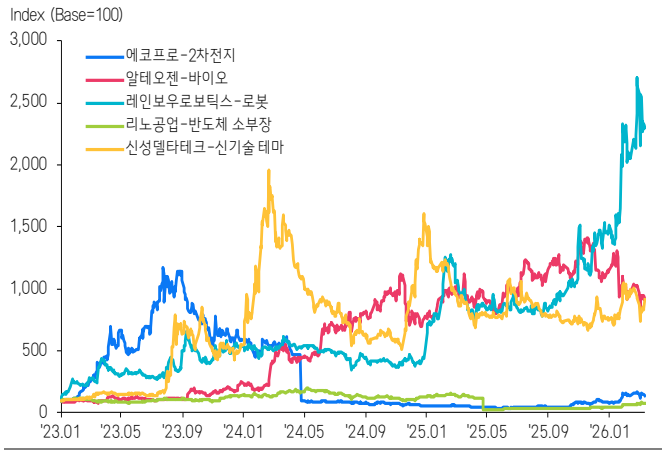
(1) 순환매 중심 시장 구조 → ETF 등장에 따른 투자 방식 변화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제한된 유동성 환경 속에서 특정 테마나 업종으로 자금이 집중되는 순환매 중심의 구조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이 과정에서 특정 종목이나 테마로 자금이 유입될 경우 다른 종목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흐름이 반복되며, 개별 종목 중심으로 높은 변동성이 발생해 왔다.

특히 개인 투자자 중심의 거래 구조가 형성된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러한 순환매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개인 투자자는 단기 수익 추구 성향이 강한 만큼 특정 테마의 상승 국면에 자금이 집중되지만, 반대로 상승세가 둔화될 경우 다른 테마로 빠르게 이동하는 양상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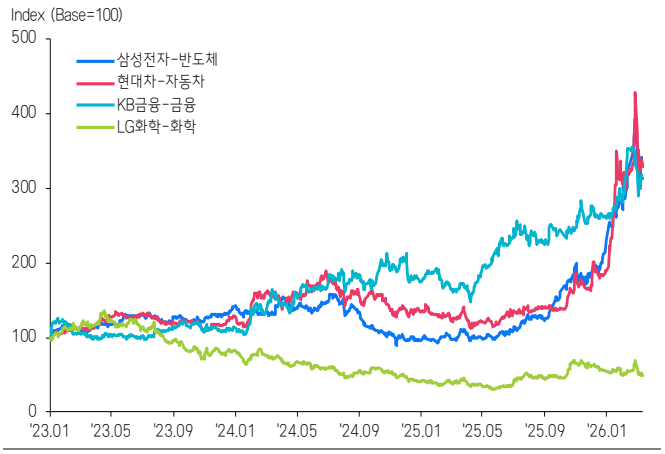
한편, 최근 코스닥 시장에서도 다양한 ETF 상품들이 출시되면서 투자 접근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순환매 중심의 시장에서는 특정 종목으로 수급이 집중되며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는데, ETF는 지수 구성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구조를 통해 개별 종목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완화하면서도 시장 전체 흐름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자금이 지수 구성 종목 전반으로 분산되는 구조를 통해 특정 종목으로의 과도한 수급 쏠림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코스닥 주요 테마 종목 주가 흐름



자료: FnGuide, 삼성증권

코스피 주요 업종 대표 종목 주가 흐름



자료: FnGuide, 삼성증권

(2) 기관 투자자 참여 부족 → 정부 정책 지원 확대

코스닥 시장은 개인 투자자 중심의 거래 구조가 지속되어 왔으며, 상대적으로 장기 투자자 기반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동안 주요 연기금 벤치마크 지수가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운영되면서, 우량 코스닥 기업조차 기관의 주요 포트폴리오에서 소외되는 수급 불균형이 존재해 왔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대규모 장기 자금 유입을 제한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이러한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관 투자자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KRX 300과 같은 통합 지수 활용을 권고하는 한편, 코스닥벤처 펀드 지원 확대,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진입 촉진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기관 투자자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은 코스닥 시장의 고질적인 수급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이 될 전망이다. 기관 투자자의 투자 참여 확대는 지수의 변동성 완화하고 저평가된 우량 기업의 가치 제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단순한 테마 중심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으로 펀더멘털 기반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시장으로 재편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스닥 시장으로의 기관 투자자 유입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

정책	주요 내용	기대 효과
코스닥벤처 펀드 확대	세제 혜택 연장, 공모주 우선 배정 비율 확대 (20%→30%)	코스닥 기업 투자 자금 확대
BDC 진입 촉진	벤처기업 투자 펀드 상장 허용	벤처 투자 자금의 공모시장 유입
연기금 투자 유인 강화	연기금 벤치마크에 코스닥 지수 반영 검토	장기 기관 자금 유입 확대
코스닥 리서치 확대	증권사 리서치 인력 및 보고서 확대 추진	기관 투자자 정보 접근성 개선
기업가치 제고 공시 확대	기술특례상장 기업, 이익 미실현 기업 등 특례 상장 기업의 공시 확대	투자자와 기업 사이의 투명한 소통

자료: 언론 보도, 삼성증권 정리

(3) 이전 상장 리스크 → 코스닥 시장 내 프리미엄 재발견

과거에는 일정 규모 이상 성장한 코스닥 기업들이 유동성 확보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 상장을 추진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났다. 코스피 시장은 상대적으로 높은 유동성과 기관 투자자 참여 비중,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측면에서 유리한 시장이고 대규모 패시브 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기업은 이전 상장 이후 코스닥 내 수급 혜택이 사라지고, 코스피 지수 편입 시차에 따른 수급 공백을 겪으며 시가총액이 오히려 이전 상장 전 수준을 밑돌았다. 이는 이전 상장 매력도가 과거 대비 다소 약화되는 모습이 보이며, 이전 상장에 따른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점차 희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양상은 코스닥 시장 내에서도 우량 기업들이 충분히 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코스피 시장으로의 이전보다 코스닥 시장 내에서 내실을 다지며 재평가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코스닥 시장의 투자 매력도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2010년 이후 코스피 이전 상장 리스트

연도	이전 상장 기업 수	기업명
2010	3	신세계푸드, 무학, 동양시스템즈
2011	3	코오롱아이넷, 에이블씨엔씨, 하나투어
2016	2	한국토지신탁, 동서
2017	1	카카오
2018	1	셀트리온
2019	3	더블유게임즈, 포스코퓨처엠, 콘텐트리중앙
2021	2	PI첨단소재, 엠씨넥스
2022	1	LX세미콘
2023	3	SK오션플랜트, 비에이치, NICE평가정보
2024	3	포스코DX, 엘앤에프, 파라다이스
2026	1	알테오젠(예정)

자료: KRX, 삼성증권

코스닥 기업의 이전 상장 사례

연도	종목명	이전 상장일	이전 상장 전일 시총 (십억원)	시가총액 (십억원)
2019	포스코퓨처엠	2019-05-29	3,226	19,168
2019	콘텐트리중앙	2019-10-18	490	128
2021	엠씨넥스	2021-07-06	855	415
2021	PI첨단소재	2021-08-09	1,568	562
2022	LX세미콘	2022-11-03	1,342	857
2023	SK오션플랜트	2023-04-19	1,161	1,161
2023	비에이치	2023-06-20	979	568
2023	NICE평가정보	2023-08-08	729	975
2024	포스코DX	2024-01-02	11,281	5,116
2024	엘앤에프	2024-01-29	5,778	4,776
2024	파라다이스	2024-06-24	1,307	1,567

참고: 시가총액은 '26년 3월 6일 기준
자료: KRX, 삼성증권

III. 코스닥 시장 투자 전략

코스닥 액티브 시대의 개막: 단기·중기·장기 투자 전략

코스닥 시장의 구조적인 성장 가능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단기·중기·장기 관점의 맞춤형 투자 전략을 제시한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존 패시브 성격의 코스닥150 ETF를 매도하고 신규 액티브 ETF를 매수하는 뚜렷한 '머니 무브'가 포착되고 있다. 이는 지수 전체를 견인하는 패시브 장세가 아닌 종목별 차별화가 심화되는 액티브 장세가 열렸음을 의미한다. 장기적인 시장 레벨업 방향성은 유효하나, 중단기적으로는 수급과 실적, 내러티브에 입각한 종목 장세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한다.

단기 관심 종목 3 (파두, 오름테라퓨틱, 아이티센글로벌)

단기 투자 전략의 핵심은 현재 코스닥150 지수에는 부재하나, 신규 코스닥 액티브 ETF 포트폴리오에는 편입된 종목을 선별하는 것이다. 출시 초기 패시브에서 액티브로의 자금 이동과 액티브 ETF의 폭발적인 순자산(AUM) 성장이 맞물리며, 해당 종목군에 단기적인 수급 쏠림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6월 코스닥150 지수 정기 변경 모멘텀까지 기대되며 차별화 랠리가 지속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수급 모멘텀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액티브 ETF 내 공통적으로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을 선별했다.

중기 관심 종목 4 (티씨케이, 씨어스테크놀로지, 피에스케이, 티에스이)

중기 투자 전략의 핵심은 현재 액티브 ETF 내 편입 비중은 낮거나 전무하지만, 실적 성장성을 바탕으로 향후 편입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선별하는 것이다. 코스닥 시장 내 시가총액 규모를 갖추고 이익 모멘텀이 돋보이는 실적 기반 성장주를 선별했다. 이러한 실적 성장주들이 코스닥 주도주로 확고히 자리매김한다면, 고질적인 디스카운트 요인이었던 고밸류에이션 논란도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판단한다.

장기 관심 종목 3 (에코프로, 에이비엘바이오, 리노공업)

장기 투자 전략의 핵심은 결국 코스닥 시장의 근본적인 레벨업을 이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선별이다. 액티브 ETF로의 초기 자금 유입 러시가 안정화되고 코스닥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회복된다면,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은 재차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을 향한 순환매로 이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긴 호흡에서는 코스닥150 편입 비중이 높은 핵심 대형주들을 선별했다.

단기·중기·장기 전략에 따른 코스닥 관심 종목 10選

	종목	시가총액(십억원)	YTD 수익률(%)	코스닥 150 비중(%)	KoAct 비중(%)	TIME 비중(%)
단기(3)	파두	3,312	211.5	-	3.5	3.3
	오름테라퓨틱	2,962	16.3	-	0.9	2.6
	아이티센글로벌	1,637	132.7	-	1.9	3.3
중기(4)	티씨케이	2,599	63.5	0.6	-	-
	씨어스테크놀로지	2,038	23.4	-	-	-
	피에스케이	1,857	73.7	0.6	-	-
	티에스이	1,176	84.6	0.2	-	-
장기(3)	에코프로	20,434	65.8	7.1	1.9	8.1
	에이비엘바이오	10,526	-6.0	3.4	1.9	4.8
	리노공업	8,650	88.2	2.7	0.9	2.4

참고: 시가총액·YTD 및 코스닥 150·KoAct·TIME 비중은 '26년 3월 13일 기준이며, 코스닥 150 비중은 KODEX 코스닥 150을 참고하여 작성
자료: 삼성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분석자료의 애널리스트는 2026년 3월 16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2026년 3월 16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기관 투자가 등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